東洋學 第94輯(2024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조선시대 『수호지』의 친족어 번역 연구*

동연(董娟)** · 고초(高超)*** · 김수연****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조선시대 『수호지』의 친족어 번역에 나타나는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친족호칭어, 친족지칭어, 친족 고유명사의 대역어를 대상으로 당시 두 언어를 번역할 때 나타나는 특성을 고찰하는 대조 언어학적 연구이다. 명나라 시기에 형성된 고전 소설 『수호지』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다양한 판본과 비평본이 생산되었다. 조선시대에 이 작품은 한반도에 들어와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였고, 한글 번역본도 생산되었다. 번역본은 당시 두 나라의 언어 교류에 대한 귀중한 자료이다. 그중 이글에서는 친족어에 주목했다. 『수호지』에서 나타난 친족어는 매우 다양하다. 호칭어와 지칭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교제와 유대의 성격을 나타내며, 언어 교류에 필수적이다. 사회호칭어(지칭어)보다 친족호칭어(지칭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대가 바뀌어도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은 혈연을 중시하는 종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두 언어에 모두 풍부한 친족어 체계가 있다. 이것은 『수호지』 친족어 번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수호지』 친족어 번역은 음역, 직역, 의역 방법을 사용하고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을 모두 채택했다. 그러나 친족어와 같은 문화적 단어를 번역할 때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결과 중국어 친족어를 한국어로 바꿀 때 일부 문화정보가 유출되거나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수호지, 조선시대, 친족어, 번역, 음역, 직역, 의역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Ⅲ. 『수호지』 친족어 번역 연구의 이론적 토대
Ⅳ. 『수호지』에 나타난 친족어 양상
Ⅴ. 『수호지』에 나타난 한국어 번역 사례 분석
Ⅵ. 『수호지』에 나타난 친족어 번역 유형
Ⅶ. 나오며

* 이 연구는 2023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AKS-2023-R-074).
** 제1저자, 중국 산동이공대학교(山東理工大學) 한국어과 부교수 / djzb2005@naver.com
*** 공동저자, 중국 치박직업대학(淄博職業學院) 한국어과 부교수 / 81048644@qq.com
**** 교신저자,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 susenwha@hanmail.net

Ⅰ.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조선시대『수호지(水滸志)』의 친족호칭어, 친족지칭어, 친족 고유명사의 대역어를 중심으로 당시 두 언어를 번역할 때 나타나는 번역상의 대조언어학적 특징을 밝혀보는 것이다. 중국 소설『수호지』는 원본의 제목이 '수호전(水滸傳)'인데 김성탄의 한글 번역본이 '수호지'라는 제목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통 '수호지'라고 알려져 있다.『수호지』는 중국의 농민기의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북송(北宋) 선화(宣和) 연간에 있었던 송강(宋江)의 실사를 바탕으로 화본(畫本), 잡극(雜劇), 강담(講談) 등의 형태로 전해오던 이야기를 명대에 이르러 소설로 만든 것이다. 이 소설은 중국 독자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어서 다양한 판본으로 제작·유통되었고, 독자들에 의해 새로운 비평본과 증보본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70회본, 100회본이 있고 120회본까지 있다.『수호지』는 조선시대에 한반도에 유입되어 다양한 계층에서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였고, 많은 인기를 얻었다. 아울러 중국어 원전(原典)을 읽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한글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록해〉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다.

조선시대『수호지』관련 기록을 통해 한글 번역본이 여러 종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는 다수의 낙질본과 제한된 수량의 실본(實本)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간(公刊)된 조선시대『수호지』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3가지다.

(1) 박재연 校注,『슈호지, 이회문화사, 2001년
(2) 박재연·유춘동·이재홍 校注,『튱의슈호지』, 학고방, 2013년
(3) 이윤석·박재연·유춘동 校注,『슈허지』, 학고방, 2007년

(1)번 번역본은 구활자본으로 1913년 최남선의 신문관에서 발행한 것이다. 모두 4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개 구한말까지 남아 있던 김성탄『수호지』번역 필사본을 가지고 구활자로 조판한 듯하다. 번역은 의역에 가깝고 고어와 고문체가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수호지』의 특성상 번역문에 고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고 중국어 차용어 또한 적지 않게 출현하고 있어 기존 필사본의 형태가 어떠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번역본은 70회본이고 설자(楔子)부터 70회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완질본이다.

(2)번 번역본은 서울대 소장『튱의소호뎐(忠義水滸傳)』, 영남대 소장『튱의소호뎐(忠義水滸傳)』과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충의수호지(忠義水滸誌)』를 합친 것이다. 결락이 많고 일부분만 남아 있다.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충의수호지(忠義水滸誌)』는 원래 화봉문고에 비장(祕藏)되어 있던 것인데 선문대 중한번역문헌 연구소에서 연구를 위하여 이 책을 구매하고 공간(公刊)을 진행하였다. 서울대 소장『튱의소호뎐(忠義水滸傳)』은 2권 7회만 남아 있고 영남대 소장『튱의소호뎐(忠義水滸傳)』은 1권 3회만 남아 있으며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충의수호지(忠義水滸誌)』는 3권 8회만 남아 있다.

(3)번 번역본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본『수호지』이다. 결질로 권8, 권

17, 권19, 권29, 권32, 권39~권41, 권51, 권55~권58, 권67~권68, 모두 15권 17책이 남아 있다. 완질본은 적어도 70책 안팎의 분량으로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은 회차를 통해 저본이 100회본 수호지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룰 번역본은 (1)번의 박재연 校注『수호지』(이회문화사, 2001년)이다. 이 번역본을 선정한 이유는 완질본이고 친족어 표현이 풍부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조선시대에 번역된『수호지』의 친족어들이다.『수호지』는 내용이 풍부하고, 인물이 많으며, 당대의 언어 특성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또『수호지』에 나타난 호칭어(지칭어)는 매우 다양하다. 호칭어는 친족호칭어(지칭어)와 사회호칭어(지칭어)로 나눌 수 있으며 친족과 사회의 여러 관계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르는 말로 시대적 특징을 담고 있다. 호칭어(지칭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회호칭어(지칭어)가 특히 그렇다. 이러한 호칭어(지칭어)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교제의 유대 정도를 나타내며, 언어 교류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 친족어는 친족호칭어, 친족지칭어, 친족 고유명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친족호칭어, 친족지칭어, 친족 고유명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문장 성분에 따라 실현양상이나, 의미적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1] 이 연구에서는 일단 친족호칭어, 친족지칭어, 친족 고유명사를 구별하지 않고 광의어인 친족어로 통칭하기로 한다. 그리고 문장 성분의 차이보다는『수호지』친족어의 대역어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현대한어사전』[2]의 정의에 따르면 호칭어(稱謂語)는 사람들이 친족과 다른 방면의 상호 관계나 신분, 직업 등으로 인해 붙여진 명칭을 말한다. 여기에는 호칭어[面稱]와 지칭어[背稱]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3]에 의하면 호칭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엄격하게 구별하며 사람을 가리키는 명호(名號)를 지칭어(指稱語) 또는 칭호(稱號)라고 하고,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부름말을 호칭어(呼稱語) 또는 호칭(呼稱)이라고 한다. 한국어 지칭어와 호칭어에는 순수한 고유어와 예로부터 써오던 한자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

아래 2장에서는 주로『수호지』의 번역과『수호지』의 친족어 번역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친족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화용론과 번역전략으로 확대해서 소개했다. 4장에서는『수호지』의 친족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다.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수호지』에 나타난 친족어 번역 사례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4] 6장에서는 5장에서 나타난 번역 방법론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다. 끝으로 7장은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1)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한정한,「체계기능언어학 기반 국어 소형절의 유형과 특징」,『Journal of Korean Culture』53, 2021, 116쪽 참조.

2)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3)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검색일 : 2023.3.10).

4)『수호지』중국어 원문은 施耐庵・羅貫中,『水滸全傳校注』, 里仁書局, 2001, 그리고 施耐庵・金聖嘆,『水滸傳(註評本)』, 上海古籍出版社, 2020, 등을 참조하였다.

Ⅱ. 선행연구

그동안 중국어와 다른 언어의 호칭어(지칭어)에 대해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대표적으로 聶穎 외,[5] 臧歡,[6] 趙越[7] 등은 한중 친족어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했고, 劉少東 외,[8] 曲爽,[9] 王雪丹[10] 등은 중일 친족어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薛鑫宇,[11] 孫景美 외,[12] 劉東梅[13] 등은 중국어와 영어의 친족 칭호를 비교했다. 학자들은 비교 연구를 통해 중국어와 다른 언어의 친족 용어 간의 차이를 찾아내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한중 친족어 사용에 대한 연구로 聶穎 외[14]는 다문화적 교제의 관점에서 한중 양국의 부계친족어와 모계친족어를 정리하여 한중 친족어의 차이와 오용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臧歡[15]은 중한 친족어가 일반화되는 현상, 즉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친족어로 호칭하는 경우에 대해 연구하였다. 趙越[16]은 한중 친족어를 통해 중한문화의 상통성과 차이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들은 주로 현대 한중 친족어를 대비・연구했으나, 고대 한중 친족어 그리고 한중 친족어 번역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대 한중 친족어의 양상과 번역 특징을 잘 보여주는, 조선시대『수호지』친족어 번역을 초점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진『수호지』번역 관련 논문 중에서 친족어 번역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艾尼瓦爾・艾合買提江[17]은『수호지』친족어의 한어와 위구르어 비교 사례 및 결론을 설명하고 분석했다. 또한『수호지』에서 친족어 위구르어 번역 방법과 전략, 즉 의미법, 음역 결합법, 직역법, 변환법, 자국화 전략 및 이국화 전략 및 관련 예문을 분석하여 문제를 지적하였다.

陳誠[18]은 펄 벅(Pearl S.Buck)이 수행한『수호지』의 친족어 번역 양상을 연구했다. 펄 벅은 원문의 호칭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고, 호칭어를 복잡하게 번역했다. 이것은 중국어와 영어 간의 이름 표현과 호칭어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 아니라, 그녀가 서양 독자들에게 중국과 서양 언어의 차이와 언어에 내재된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킴으로써 중영 두 언어 간의 문화적 대화와 상호보완을 더욱 실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

5) 聶穎 외,「跨文化視角下中韓親屬稱謂語對比研究」,『廣西教育學院學報』04, 2021.
6) 臧歡,「中韓親屬稱謂語泛化對比研究」,『青年文學家』03, 2016.
7) 趙越,「漢韓親屬稱謂詞文化對比研究」,『青年文學家』12, 2012.
8) 劉少東 외,「中日親屬稱謂的對比研究」,『語文學刊』11, 2016.
9) 曲爽,「中日親屬稱謂的異同與文化特征探究」,『知音勵誌』17, 2016.
10) 王雪丹,「中日親屬稱謂的對照研究」,『青年文學家』18, 2016.
11) 薛鑫宇,「中英稱謂語對比研究及其文化內涵」,『作家天地』19, 2022.
12) 孫景美 외,「從中西方文化差異的角度理解英漢詞匯不對等現象──以親屬稱謂詞為例」,『懷化學院學報』36, 2017.
13) 劉東梅,「中英親屬稱謂語的對比分析與翻譯」,『考試周刊』04, 2016.
14) 聶穎 외, 앞의 논문, 2021.
15) 臧歡, 앞의 논문, 2016.
16) 趙越, 앞의 논문, 2012.
17) 艾尼瓦爾・艾合買提江,「≪水滸傳≫稱謂語維吾爾語翻譯研究」, 喀什師範學院碩士論文, 2012.
18) 陳誠,「≪水滸傳≫賽珍珠譯本的文化選擇」, 東華理工大學碩士論文, 2015.

한국에서도 최근 『수호지』 번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춘동[19]은 『수호지』 관련 기록을 정리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호지』 수용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수호지』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수용되었고 번역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수호지』의 형성 과정과 계통, 『수호지』 관련 기록, 『수호지』의 한글 번역본의 계열과 성격 등을 밝혔다.

유춘동 · 박재연[20]은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충의수호지』를 대상으로 자료의 서지(書誌), 번역본으로서의 전반적인 성격과 특징, 국어학적인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수호지』의 국어학적인 특성을 통해 일부 고형의 어휘들이 보이지만 표기법, 음운형태 등으로 보아 최초의 번역은 18세기에 이루어졌고, 해당 판본은 19세기 후반 경에 다시 필사된 것임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중국어와 다른 언어의 친족어 대조, 『수호지』에서의 친족어 번역, 그리고 『수호지』 번역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으나, 한글 번역본의 친족어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수호지』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친족어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수호지』친족어 번역 연구의 이론적 토대

중국 고대에는 예(禮)를 중요시하여 존비(尊卑), 귀천(貴賤), 장유(長幼)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호칭도 구별되었기에, 호칭은 단순히 '대상을 부르는 기능'을 넘어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수호지』의 호칭어(지칭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보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더 정확하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종법(宗法)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사회에는 유교 종법제도를 기반으로 장유유서(長幼有序)와 남녀유별(男女有別) 등의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한중 친족어에는 대부분 대역어를 찾을 수 있다. 형부, 매부, 고모부, 외숙부 등 구미 언어에서 찾기 힘든 친족어도 한국어에서는 대응어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어 친족어는 한국어에서 대역어를 찾을 수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친족어는 중국어에 비해 남녀 구별이 더 엄격하다. 중국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를 동일한 호칭으로 부르는데 한국어에서는 호칭을 구별하여 부른다. 또한 한국어의 친족어는 중국보다 친족관계가 더 명확하다. 형(오빠)과 언니(누나)의 배우자에 대한 친족어가 다르고, 형(오빠)과 언니(누나)의 입장에서 동생의 배우자를 가리키는 친족어가 다르다. 중국어에는 대부분 호칭어가 아니라 지칭어에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

19) 유춘동, 「〈수호전〉의 국내 수용 양상과 한글 번역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2.
20) 유춘동 · 박재연,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충의수호지』 연구」, 『열상고전연구』 40, 2014.

이처럼 중국어 친족어와 한국어 친족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그대로 옮기면 원문의 감정적 의미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호지』 속의 호칭어(지칭어)는 송·원·명 3대 왕조가 사용한 친족호칭어(지칭어)와 사회호칭어(지칭어)를 포함한다. 사회호칭어(지칭어)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면, 친족호칭어(지칭어)는 사회호칭어(지칭어)보다 변화가 느리고 문화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친족어 체계는 그 민족의 사회문화 특성을 반영하며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21]

친족어는 풍부한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본 『수호지』를 대상으로 한 친족어 번역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기본적인 친족어 번역 연구의 이론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번역 전략에는 자국화(domestication)와 이국화(foreignization)가 있다. 자국화와 이국화는 미국의 번역이론학자 Lawrence venuti가 1995년에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자국화는 번역어국 독자를 중심으로 번역문을 작성하는 것이고 이국화는 원어 또는 원문의 작가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Lawrence venuti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원문의 표현이나 구조를 될수록 살려주는 들이밀기(foreignization)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번역이론가 Nida는 번역문의 표현 패턴을 번역문 독자의 문화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독자가 원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어 문화의 패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는다.[22]

자국화 전략을 채택하면 독자는 『수호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국화 전략을 결합하면 원본 친족어에 담긴 이국적인 문화적 요소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자국화와 이국화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수호지』 친족어의 번역은 자국화와 이국화 양자를 결합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6장에서 살펴볼 음역과 직역은 주로 이국화 전략이고 의역은 자국화 전략에 해당한다. 『수호지』는 중국 백화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번역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고 『수호지』 친족어에는 특히 구어가 많아서 중국어를 차용하고 이국화 전략으로 번역한 것이 적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자국화와 이국화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수호지』 친족어 번역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Ⅳ. 『수호지』에 나타난 친족어 양상

『수호지』에서 나온 친족어는 모두 124개이다.[23] 본 연구에서는 친족관계의 발생에 따라 124개의 친족어

21) 陳佳, 「從漢語血緣親屬稱謂看語言對文化的反映」, 『語言研究』 特刊, 2002, 77쪽.
22) Nida, 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p.195.
23) 盧瓊, 「≪水滸傳≫稱謂詞研究」, 安徽師範大學碩士論文, 2017, 12~13쪽.

를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혈연, 혼인, 법률적 인정 등에 따라 친족어를 혈족친족어, 인척친족어, 제도친족어로 구분하였다.[24] 혈족친족어는 혈연에 의한 친족어이고, 인척친족어는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에 의한 친족어이다. 그리고 제도친족어는 혈족·인척 관계가 없고 법률적 인정에 의한 친족어이다. 『수호지』에는 제도친족어가 2개 나타나는데, 의부라는 뜻의 '幹爺'와 계부라는 뜻의 '晩爺'가 그것이다.[25]

1. 혈족친족어(62개)

(1) 손윗사람 : (26개)

〈표 1〉 혈족친족어-손윗사람

분류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 병칭
	존칭(尊稱)		祖父	令尊, 家長	令堂, 老尊堂	父母
	겸칭(謙稱)			家尊, 老父, 老爹	老母, 老娘	爹娘, 爺娘
	일반		公公	阿爹, 爹爹, 父親, 親父, 爺	母親, 親娘, 娘, 娘母	
죽은 사람		先祖, 祖宗		先父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호지』에는 동일한 친족 관계에서 부르는 친족어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존칭, 겸칭, 일반 용어에 따라 표현도 달라진다. 또한 죽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게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나타내는 용어 중 존칭으로는 '令尊, 家長'이 있고, 겸칭으로는 '家尊, 老父, 老爹'가 있으며 일반 용어로는 '阿爹, 爹爹, 父親, 親父, 爺' 등이 있다. 그리고 죽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先父'라고 부른다.

(2) 같은 항렬 : (17개)

〈표 2〉 혈족친족어-같은 항렬

	형(兄)	제(弟)	자(姊)	매(妹)	형제 병칭
문어	先兄	舍弟, 愛弟, 令弟	家姐	賢妹, 令妹	兄弟, 弟兄
구어	大哥, 哥哥	항렬순서+哥,[26] 兄弟	姐, 姐姐	小妹, 妹子	

24) 劉宏麗, 「明清時期的語用敬謙手段」, 『濟南大學學報』 1, 2011, 53쪽.
25) 『수호지』에서 나타난 친족어와 조선시대 한국어 대역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남광우, 『고어사전』, 교학사, 2011; 김영, 『삼국지 고어사전』, 학고방, 2022; 胡竹安, 『水滸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89; 曲家源, 「≪水滸傳≫稱謂考證」, 『山西師大學報』, 1994; 穆海宏, 『水滸詞典1』,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2012; 穆海宏, 『水滸詞典 2』,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2013 등을 참조하였다.
26) 예를 들어 무대(武大)가 자기 아우 무송(武松)을 '二哥'라고 부른다. 그리고 완소이(阮小二)가 자기 아우 완소오(阮小五)를 '五哥'라고 부른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호지』에서는 '형제자매'에 관한 용어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로 문어나 구어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姊) 즉 언니/누나에 대해 문어에서는 '家姐', 구어에서는 '姐, 姐姐'란 용어를 사용한다.

(3) 손아랫사람(19개)

〈표 3〉 혈족친족어-손아랫사람

	아들	딸
겸칭	小頑, 小兒	小女
일반	子, 兒, 兒子, 長男, 長子, 次子, 親兒, 親子, 孩兒	女, 兒, 女兒
존칭	衙内, 小郎, 令郎	令愛

『수호지』에서는 '아들'과 '딸'에 관한 친족어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들'을 가리키는 용어의 겸칭으로는 '小頑, 小兒'가 있고 일반 용어로는 '子, 兒, 兒子, 長男, 長子, 次子, 親兒, 親子, 孩兒'가 있으며 존칭으로는 '衙内, 小郎, 令郎' 등이 있다.

2. 인척친족어(60개)

(1) 부부 친족어(35개)

〈표 4〉 부부 친족어

		남편	아내
	존칭	家長, 官人, 相公, 丈夫	寶眷, 夫人
	겸칭	拙夫, 家公	拙荊, 荊婦, 家眷, 渾家, 老小
	일반	老公, 大哥, 夫, 蓋老, 養家人	老婆, 大姐, 大嫂, 姐姐, 妻, 妻小, 妻子, 娘子, 阿婆
혼인 제도	**초배(初配)**		大娘子
	초배 아님	孤老	外宅, 妾, 繼室
죽은 사람		亡夫	先妻, 先頭娘子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호지』에서 사용하는 '남편'과 '아내' 관련 친족어도 여러 가지이다. '남편'과 '아내' 관련 친족어는 존칭, 겸칭, 일반 용어로 나눌 수 있고 또 초배 여부에 따라 친족어가 구분된다. 그리고 죽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친족어도 따로 있다.

(2) 기타 인척친족어(25개)

〈표 5〉 기타 인척친족어

	아내 측	남편 측
존칭	泰山(장인), 母舅(외삼촌)	
일반	丈人(장인), 妻父(장인), 丈母(장모), 阿舅(외삼촌), 妻舅(처남), 小舅(처남), 舅子(처남), 妻弟(처남), 舅舅(처남), 女婿(사위), 大舅(처남), 外甥(조카)	叔叔(숙부, 시동생), 叔父(숙부), 伯伯(시숙, 백부), 嫂子(형수), 阿嫂(형수), 嫂嫂(형수), 姆姆(형수), 嬸嬸(숙모, 제수), 嬸子(숙모, 제수), 姑娘(고모), 姑姑(고모)

『수호지』에 등장하는 기타 인척친족어는 남편과 아내 외에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친족 관계에 의한 친족어다. 아내 측에는 장인, 장모, 외삼촌, 처남, 외삼촌, 조카 등 있고, 남편 측에는 숙부, 백부, 시동생, 시숙, 형수, 숙모, 제수, 고모 등이 있다. 여기에도 존칭과 일반 용어가 모두 존재한다.

3. 제도친족어(2개)

〈표 6〉 제도친족어

幹爺(의부), 晩爺(계부)

『수호지』에 나타나는 제도친족어는 두 종류이다. '幹爺'는 '의부'의 뜻이고 '晩爺'는 '계부'의 뜻이다

위의 내용을 볼 때, 『수호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상에 여러 개의 친족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父親・爹爹・阿爹'는 모두 아버지를 가리키고, "老婆, 渾家, 娘子, 大嫂, 大姐, 姐姐, 妻, 妻子, 先妻, 妻小, 大娘子" 모두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의 친족어로 서로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大哥"는 남편뿐만 아니라 맏형도 가리킬 수 있다.

또한 『수호지』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호칭이 일반 호칭과 다를 수 있고 문어와 구어에서의 호칭도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경하는 뜻으로 부르는 친족어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부르는 친족어도 구분한다.

이러한 호칭의 구분과 차이는 작품의 창작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농민 봉기를 그린 첫 번째 소설인 『수호지』는 사회 하층부터 상층의 관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보여준다. 책 속에 나오는 108명의 호걸들은 후주(後周)의 황족 후예인 시진(柴進)에서 보통 시장의 소도둑인 시천(时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과 배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인물의 복잡하고 다양한 신분은 그들이 사용하는 호칭을 통해 학식, 신분, 소양 측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Ⅴ. 『수호지』에 나타난 한국어 번역 사례 분석

『수호지』에는 등장 인물이 매우 많은 만큼 친족어도 많이 등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대상에 여러 친족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하나의 친족어로 서로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번역본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겠다.

(1ㄱ) 這淫婦扯住賊禿袖子, 說道 : "師兄, 明日來取功德錢時就對爹爹說血盆心一事, 不要忘了。" (第四十三回)
더 음뷔 적화샹의 장삼 소ᄆᆡ를 붓들고 왈,
"ᄉᆞ형은 ᄇᆞᆰᄂᆞᆫ 날 공덕젼을 가질너 올 ᄯᅢ에 우리 부친을 ᄃᆡᄒᆞ여 불공ᄒᆞᆯ 일을 잇지 말고 ᄭᅦ치게 ᄒᆞ[144]라."

(1ㄴ) 那後生那裏肯拜, 心中越罵道 : "阿爹, 休聽這廝胡說 ! 若是他贏得我這條棒時, 我便拜他為師。" (第一回)
아야ᄂᆞᆫ 뎌 놈의 말을 ᄆᆡᆺ지 마르쇼셔! 쇼ᄌᆡ(小子) 뎌 놈과 결워 만일 지거든 절ᄒᆞ여 스승을 삼으리이다!

(1ㄷ) 今日我父親有個女兒, 招你為婿。(第四十九回)
이제 나의 부친ᄭᅴ ᄒᆞᆫ 낫 녀ᄋᆡ 잇셔 너를 ᄉᆞ위 삼으리라.

예문(1)에서 나오는 '爹爹, 阿爹, 父親'은 모두 아버지에 관한 친족어이다. 중국어에서 이 세 가지 호칭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번역문을 보면 '爹爹'는 '부친', '阿爹'는 '아야(爺爺)', '父親'은 '부친'으로 번역되었다. 예문(1ㄱ)(1ㄷ)에서는 다른 사람과 담화할 때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예문(1ㄴ)은 아버지 앞에서 호칭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예문 (1ㄱ)(1ㄷ)은 지칭할 때 부친으로 번역되고 예문(1ㄴ)은 면칭할 때 아야로 번역되었다. 부친은 아버지를 정중히 이르는 말이고 아야는 아버지를 높여 이르던 말이다. 그래서 제3자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말할 때 정중히 부르고, 얼굴을 보고 부를 때는 높이는 말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2ㄱ) 那淫婦見丈夫醉了, 謝了眾人, 自和迎兒攙上樓梯去, 明晃晃地點著燈盞。(第四十四回)
더 음뷔 장부의 취ᄒᆞ여 옴을 보고 즁인을 사례ᄒᆞ여 보낸 후 영ᄋᆞ로 더브러 붓드러 루샹으로 올을ᄉᆡ 등촉이 휘황ᄒᆞ거ᄂᆞᆯ…

(2ㄴ) 只見簾子開處, 一個婦人出到簾子下, 應道 : "大哥, 怎地半早便歸 ? " (第二十三回)
포렴(布簾)을 거두고 ᄒᆞᆫ 낫 부신이 나오며 왈,
"장부ᄂᆞᆫ 엇지 일ᄌᆞᆨ이 도라오ᄂᆞ뇨?"

(2ㄷ) 他的蓋老便是街上賣炊餅地武大郎。(第二十三回)
뎌의 사나희ᄂᆞᆫ 가샹에셔 군 ᄯᅧᆨ 팔나 ᄃᆞᆫ니는 무대이니라.

(2ㄹ) 王婆道 : "大官人怎麼不認得, 他老公便是每日在縣前賣熟食地" (第二十三回)

왕패 왈, "대관인이 엇지 뎌 사름을 모르시ᄂᆞ뇨? 그 집 사름은 현젼에 잇서 음식 ᄆᆡ매ᄒᆞᄂᆞᆫ 사름이니라"

예문(2)에서 '丈夫, 大哥, 蓋老, 老公'은 모두 남편을 가리킨다. 그 중 예문(2ㄱ)은 소설의 서술 부분에서 나온 것이고 예문 (2ㄴ)은 남편을 보고 말한 것이며 예문(2ㄷ)(2ㄹ)은 대화에서 제3자를 이야기할 때 언급한 것이다. 번역문에서 각각 '丈夫'는 '쟝부', '大哥'는 '쟝부', '蓋老'는 '사나희', '老公'은 '그 집 사름'으로 번역하였다. 예문(4)는 지칭이고 예문(2ㄴ)은 호칭인데 '쟝부'로 번역되었다.

(3ㄱ) 林沖娘子趕到布簾下, 叫道 : "大哥, 少飲早歸。" (第六回)
낭ᄌᆡ 닐오ᄃᆡ,
"ᄃᆡ쟝부ᄂᆞᆫ 술을 적게 먹고 일ᄌᆞᆨ이 도라오라."

(3ㄴ) 娘道 : "我兒, 你去了許多時 ! 這幾年正在那裏安身 ? 你的大哥只是在人家做長工, 止博得些飯食吃。養娘全不濟事. 我如長思量你, 眼淚流幹, 因此瞎了雙目, 你一向正是如何 ?" (四十二回)
로낭이 리규의 음셩을 듯고 왈,
"내 ᄋᆞ이 어ᄃᆡ를 가셔 여러 해를 오지 아니ᄒᆞ다가 이제야 도라오며 그 ᄉᆞ이ᄂᆞᆫ 어ᄂᆞ 곳에 안신ᄒᆞ여잇던고? 네 형은 ᄂᆞᆷ의 집에 고공사 리ᄒᆞ여 밥을 엇어다가 나를 먹이되 젼혀 시원ᄒᆞᆫ 일이 업ᄂᆞ고로 ᄒᆞᆼ샹 너를 ᄉᆡᆼ각ᄒᆞᆷ[110]으로 눈물이 흘너 말을 ᄭᅢ가 업더니 인ᄒᆞ여 두 눈이 머럿거니와 네 일향 어ᄃᆡ가 잇던고?"

(3ㄷ) 娘道 : "你等大哥來, 卻商議。" (四十二回)
로낭 왈,
"너의 가개 도라오기를 기다려 의론ᄒᆞ고 가리라."

예문(2ㄴ)과 (3)에서 모두 '大哥'가 나왔는데 예문(5)와 (8)에서는 남편이라는 뜻이고 예문(3ㄴ)(3ㄷ)은 맏형의 뜻이다. 예문(2ㄴ)(3ㄱ)은 각각 'ᄃᆡ쟝부', '쟝부'로 번역되었고 예문(3ㄴ)(3ㄷ)에서는 모두 리귀의 어머니가 리귀의 맏형을 지칭했는데 각각 '형', '가개'로 번역되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수호지』의 친족어는 매우 다양하고 하나의 대상에 여러 친족어가 대응된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한국어 번역문에서의 한국어 대역어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뜻으로『수호지』에서 '爹爹, 阿爹, 父親' 등 용어가 나왔는데 번역문에서도 '부친, 아야' 등 용어가 다양하게 나왔다.『수호지』에서는 하나의 친족어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다. 한국어 번역문도 실제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되었다. 예를 들어『수호지』에서 '大哥'는 남편과 형(오빠)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각각 'ᄃᆡ쟝부, 쟝부'와 '형, 가개' 등으로 번역되었다.

Ⅵ. 『수호지』에 나타난 친족어 번역 유형

6장에서는 친족어 번역 방법과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친족어 번역 방법은 주로 음역, 직역, 의역의 3가지가 있다. 〈표 1〉~〈표 6〉에서 나온 친족어들 중에는 음역으로 번역된 것도 있고 직역, 의역으로 번역된 것도 있다.

6.1. 음역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번역본에는 중국어 차용어가 적지 않게 출현하고 있다. 차용은 다른 나라 언어에서 단어, 형태소, 문자나 개별적 표현 따위를 빌려다 쓰는 것이다. 흔히 음차(音借)와 훈차(의차)로 나누는데 음차는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 그 소리만 빌려서 자국의 문자 체계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음차의 한 종류가 음역이다. 외국어의 음을 한자로 나타낸 것을 음역이라 한다. 중국어를 차용한 단어의 경우, 대개 중국어를 한자어 독음으로 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9세기 소설 독자나 번역자에게는 이러한 언어 환경이 매우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역의 예문은 다음 (4)(5)(6)과 같다.

(4ㄱ) 武大說道 : "大嫂, 原來景陽岡上打死大蟲新充做都頭的正是我這兄弟。"那婦人叉手向前道 : "叔叔萬福。"武松道 : "嫂嫂請坐。"武松當下推金山, 倒玉柱, 納頭便拜。那婦人向前扶住武松, 道 : "叔叔, 折殺奴家 ! "武松道 : "嫂嫂受禮。" (第二十三回)
무대 닐오ᄃᆡ,
"대수야! 원릭 경양강상에서 대츙을 잡고 새로 도두 ᄒᆞᆫ 사ᄅᆞᆷ이 졍히 나의 친형뎨니라. 그 부인이 손 ᄭᆞᆺ고 압흐로 나와 무숑을 향ᄒᆞ야 만복ᄒᆞ쇼셔."
ᄒᆞ니 무숑 왈,
"수수ᄂᆞᆫ 안져 무이의 절을 밧으쇼셔"
ᄒᆞ고 공손히 절ᄒᆞ니 그 부인이 무숑을 븟드러 니르혀 왈,
"숙숙은 례ᄅᆞᆯ 그만ᄒᆞ쇼셔, 노개(奴家) 불안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리로소이다."
무숑 왈,
"수수ᄂᆞᆫ 불안치 말으쇼셔."

(4ㄴ) 武大道 : "二哥再吃幾杯了去。"武松道 : "只好恁地, 卻又來望哥哥。" (第二十三回)
무대 닐오ᄃᆡ,
"이가ᄂᆞᆫ 몃 잔 술을 더 먹고 가라."
무숑이 닐오ᄃᆡ,
"다른 날 다시 오리이다."

(4ㄷ) 武大道 : "大嫂說的是。二哥你便搬來, 也教我爭口氣。" (第二十三回)
우대 왈,

"대수의 말이 올흐니 현데는 내 집으로 모두혀 ᄀᆞᆺ치 잇게 ᄒᆞ라."

(4ㄹ) 武松道 : "既是哥哥嫂嫂恁地說時, 今晚有些行李便取了來。" (第二十三回)

무숑 왈,

"임의 가가와 수수의 ᄯᅳᆺ이 그럴진댄 무이 오ᄂᆞᆯ 져녁에 오리이다."

예문(4)에는 '大嫂, 叔叔, 嫂嫂, 哥哥, 二哥' 등과 같은 친족어가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중국어 발음대로 음역하였다. 예문에서 '大嫂'는 '아내', '叔叔'는 남편의 남동생, '嫂嫂'는 형의 아내, '哥哥'는 형, '二哥'는 남동생을 가리키는데 번역본에서는 각각 당시 중국어 발음으로 '대수(大嫂), 슉슉(叔叔), 수수(嫂嫂), 가가(哥哥), 이가(二哥)'로 번역되었다.

다음 예문(5)(6)에서의 친족어도 음역으로 번역되었다.

(5) 孫新道 : "請哥哥嫂嫂去房裏看病。"孫立同樂大娘入進房裏, 見沒有病人。孫立問道 : "孀子病在那裏房內?" (第四十八回)

손신 왈,

"가가는 엇지 들어가 병을 뭇지 아니ᄒᆞᄂᆞ뇨?"

손립 왈,

"수쉬 어ᄃᆡ셔 알ᄂᆞ뇨?"

예문(5)에서의 '孀子'는 제수의 뜻인데 번역본에서 중국어 발음과 비슷하게 '수쉬'로 번역하였다. 다음 예문(6) 친족어 음역 사례를 살펴보자.

(6ㄱ) 林冲道 : "已知拙婦被高太尉所逼, 隨即自縊而死 ; 妻父亦為憂疑染而亡"。(第五十七回)

림충 왈,

"졸부는 고태위 역ᄌᆞ의 핍박ᄒᆞᆷ을 견ᄃᆡ지 못ᄒᆞ여 목매여 죽고 쳐부는 분ᄒᆞ고 두려움을 인ᄒᆞ여 병드러 죽으니라."

(6ㄴ) 那小和尚便道 : "幹爺, 如何一向不到弊寺?"老子道 : "便是開了這些店面, 沒工夫出來"。(第四十四回)

쇼화샹이 마져 절ᄒᆞ며 왈,

"건야(幹爺)는 엇지ᄒᆞ여 폐ᄉᆞ에 ᄒᆞᆫ번도 오지 아니ᄒᆞ시ᄂᆞ잇고?"

반공 왈,

"뎜의 일을 보숣힐 사ᄅᆞᆷ이 업셔 가지 못ᄒᆞ엿노라."

예문(6ㄱ)에서 '拙婦'는 자기 아내를 겸칭하는 말인데, 중국어 발음 그대로 졸부로 번역하였다. 예분(6ㄴ)에서의 '幹爺'는 친족어 중 제도친족어이고 의부라는 뜻이다. 번역본에서는 중국어 발음 그대로 건야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은 당시의 번역자들이 중국의 문화적 분위기에 익숙했던 계층임을 나타낸다. 중국어와 한자어를 친숙히 사용했기에 어색하게 여기지 않고 음역을 한 것이다. 또한 어떤 친족어는 한국어에서 전혀 쓰지 않는 것이라서 번역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었으므로 중국어를 음역하여 그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적당한 대역어를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대체하였다 하더라도 어색한 표현들이 존재하게 된다.

6.2 직역

조선시대에 이루어진『수호지』한글 번역본에는 중국어를 그대로 한자어로 번역하는 친족어가 많다. 친족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고유의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다. 물론 사전에 있는 한자어이다. 이 부분으로 분류되는 직역은 6.1절의 음역과 상당히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6.1절의 음역은 한자어를 풀지 않고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6.2절에서의 직역은 약간의 의역도 하지 않고 완전히 한글로 풀어 축자직역(逐字直譯) 한 것이다. 현재 한국어에서 쓰이는 단어 가운데에는 역사적으로 외래어에서 차용어의 단계를 거치고 귀화어(歸化語)에 이른 말들이 적지 않다. 차용어는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볼 때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 가장 많다. 중국어로부터의 차용은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다. 외래어는 한국어에 동화된 정도에 따라서 귀화어(歸化語), 차용어, 외래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귀화어는 한국어에 동화된 정도가 가장 높다.

다음 대역어는 번역할 시기에 이미 한국에서 차용되고 귀화어가 되어 많이 쓰였을 수도 있고 조선시대에 다른 중국소설과 같이 번역되면서 차용되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것이다. 번역문은 다음 (7)과 같다.

(7ㄱ) 自從梁山泊分別回鄉, 非是昧心 ; 一者母親年老, 無人奉侍 ; …… (第五十二回)
량산박에셔 리별ᄒᆞ고 향리에 도라오니 ᄆᆞᆷ[53] 이 ᄌᆡ ᄀᆞᆺ흔지라. 아니 가자 ᄒᆞᄂᆞᆫ 일이 아니로ᄃᆡ 일쟈ᄂᆞᆫ 모친이 년로ᄒᆞ시되 다른 시봉ᄒᆞᆯ 사ᄅᆞᆷ이 업고……

(7ㄴ) 公孫勝道 : "幹礙老母無人養贍。本師羅真人如何肯放。其實去不得了。" (第五十二回)
공손승 왈 "다만 로모ᄅᆞᆯ 시봉ᄒᆞᆯ 사ᄅᆞᆷ이 업ᄂᆞᆫᄃᆡ 구애ᄒᆞ고 본ᄉᆞ 라진인이 즐기여 노하 보내지 아니 ᄒᆞ니 엇지 가리오?"

(7ㄷ) ……他便问我缘故, 我便告他道 : '家中有个九十岁的老娘, 无人赡养, 定是饿死。……" (第四十二回)
"……그놈이 연고ᄅᆞᆯ 뭇기로 가즁에 구십로뫼 잇셔 나 곳 죽으면 로낭이 굴머 죽으리라……"

예문(7)에서 '母親, 老母, 老娘'은 모두 어머니라는 뜻인데 번역문에서 각각 모친(母親), 노모(老母), 로낭(老娘)으로 직역하였다. 다음 예문(8)은 모두 어머니를 뜻하는 '娘'의 번역문이다.

(8ㄱ) 李逵看時見娘雙眼都盲了, 坐在床上念佛。李逵道 : "娘, 鐵牛來家了!" (四十二回)

리귀 봄애 로낭이 두 눈이 머러상 우헤 안져 념불ᄒᆞ거ᄂᆞᆯ 기귀 불너 왈,
"로낭아! 텰위 왓나이다!"

(8ㄴ) 娘道 : "我兒, 你去了許多時 ! 這幾年正在那裏安身 ? 你的大哥只是在人家做長工, 止博得些飯食吃。養娘全不濟事. 我如長思量你, 眼淚流幹, 因此瞎了雙目, 你一向正是如何 ? " (四十二回)
로낭이 리규의 음셩을 듯고 왈,
"내 ᄋᆞ이 어ᄃᆡ를 가셔 여러 해를 오지 아니ᄒᆞ다가 이제야 도라오며 그 ᄉᆞ이ᄂᆞᆫ 어ᄂᆞ 곳에 안신ᄒᆞ여잇던고? 네 형은 ᄂᆞᆷ의 집에 고공사 리ᄒᆞ여 밥을 엇어다가 나를 먹이되 젼혀 시원ᄒᆞᆫ 일이 업ᄂᆞ고로 ᄒᆞᆼ샹 너를 ᄉᆡᆼ각ᄒᆞᆷ[110]으로 눈물이 흘너 말을 째가 업더니 인ᄒᆞ여 두 눈이 머럿거니와 네 일향 어ᄃᆡ가 잇던고?"

(8ㄷ) 娘道 : "你等大哥來, 卻商議。" (四十二回)
로낭 왈,
"너의 가개 도라오기를 기다려 의론ᄒᆞ고 가리라."

예문(8)에는 어머니를 가리키는 '娘'이 여러 번 나타났는데 모두 '로낭'으로 번역하였다. 한국에는 단음절 친족어가 거의 없고 모두 두 음절이나 다음절이다. 그래서 '娘'을 '낭'으로 번역하지 않고 접두사 중 연로(年老) 뜻하는 '로'를 붙이고 '로낭'으로 번역하였다. 다음 예문(9)도 친족어의 직역 사례이다.

(9) 林沖道 : "已知拙婦被高太尉所逼, 隨即自縊而死 ; 妻父亦為憂疑染而亡"。(五十七回)
림츙 왈,
"졸부ᄂᆞᆫ 고태위 역ᄌᆞ의 핍박ᄒᆞᆷ을 견ᄃᆡ지 못ᄒᆞ여 목매여 죽고 쳐부ᄂᆞᆫ 분ᄒᆞ고 두려움을 인ᄒᆞ여 병드러 죽으니라."

예문(9)에서의 '妻父'는 아내의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직역하여 '쳐부'로 번역하였다.

사실상 한자와 한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한자는 이미 한글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친족어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중국어식의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6.3 의역

조선의 문자 환경이 중국소설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부분적으로 한국 현실과 맞지 않은 어휘와 문화들을 완벽하게 등가 번역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한 까닭에 의역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10) 武大道 : "大嫂說的是。二哥你便搬來, 也教我爭口氣。" (二十三回)
우대 왈,
"대수의 말이 올흐니 현뎨ᄂᆞᆫ 내 집으로 모두혀 ᄀᆞᆺ치 잇게 ᄒᆞ라"

예문(4ㄴ)에서도 '二哥'란 친족어가 나왔고, 예문(10)과 똑같이 무대가 무송을 호칭하는 장면인데 예문(4ㄴ)에서는 음역해서 '이가'로 번역했고 예문(10)에서는 의역해서 '현뎨(賢弟)'로 번역하였다. '현뎨'는 자기의 남동생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원문에서의 '二哥'도 무대는 무송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다른 친족어 의역 예문은 (11)과 같다.

(11ㄱ) 顧大嫂道 : "伯伯, 你的樂阿舅透風與我們了！一就去劫牢, 一就去取行李不遲。" (四十八回)
고대쉬 왈,
"너의 처남 악홰이 쇼식을 재게 통긔ᄒᆞ엿거ᄂᆞᆯ 무엇을 다시 알아보리오? 이 일은 ᄒᆞᆫ 편으로 일을 힝ᄒᆞ며 ᄒᆞᆫ 편으로 집안 것을 슈습ᄒᆞᄂᆞᆫ 것이 올흐니라."

(11ㄴ) 知府道 : "家尊寫來書上分付道 : '近日太史院司千監奏道 : 夜觀天象, 罡星照臨吳楚, 敢有作耗之人。'" (三十八回)
지뷔 문득 닐오ᄃᆡ,
"가친이 편지 ᄒᆞ엿스되 태ᄉᆞ원ᄉᆞ텬감이 알외기ᄅᆞᆯ 밤에 텬문을 보온 즉 오나라 · 초나라 ᄉᆞ이에 강셩(天罡)이 범ᄒᆞ엿스니 그 형상이 나라ᄅᆞᆯ 어ᄌᆞ러일 사ᄅᆞᆷ이 잇슬지라 형편을 숨혀 체포ᄒᆞ라 ᄒᆞ엿고"

예문(11ㄱ)에서 '阿舅'는 아내의 남동생을 가리키는데 한국의 대응어는 '처남'으로 번역되었다. 예문(11ㄴ)에서 '家尊'은 집안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고 이 문장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만약 원래 뜻대로 '집안의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번역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 문장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서 가친으로 번역하였다. 다음 예문(12)는 '장인'에 대한 의역 사례이다.

(12ㄱ) 楊雄道 : "泰山看家, 我和大嫂燒香了便回。" (四十五回)
양웅 왈,
"악쟝은 집을 잘 보쇼셔. 쇼셰 낭ᄌᆞ와 ᄀᆞᆺ치 ᄌᆞᆷ감 향을 살으고 오리이다."

(12ㄴ) 那大王把手来扶到 : "你是我的丈人, 如何倒跪我？" (第四回)
대왕이 황망이 ᄆᆞᆯ게 ᄂᆞ려 븟드러 왈,
"약장은 너모 관례치 말으쇼셔, 쇼셰(小婿) 악쟝(岳丈)의 ᄉᆞ위 되엿스니 엇지 젼과 ᄀᆞᆺ치 ᄒᆞ리오?"

예문(12)에서 '泰山, 丈人'은 모두 아내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그중에서 '泰山'은 장인의 높임말이다. 예문에서는 존칭이 없이 모두 '악쟝(岳丈)'으로 번역하였다.

6.4 누락, 오역

조선시대의 번역자가 중국어를 잘 이해한다 해도 번역에 약간의 오역은 피할 수 없다. 『수호지』 친족어를

번역할 때도 누락하거나 오역한 경우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다음 (13)과 같다.

(13) 解珍道 : "我有個房分姐姐, 是我爺面上的, 卻與孫提轄兄弟為妻, 見在東門外十裏牌住。原來是我姑娘的女兒, 叫做母大蟲顧大嫂, 開張酒店, 家裏又殺牛開賭。我那姐姐有三二十人近他不得。姐夫孫新這等本事也輸與他。只有那個姐姐和我兄弟兩個最好。孫新、孫立的姑娘, 卻是我母親, 以此他兩個又是我的姑舅哥哥。央煩的你暗暗地寄個信與他, 把我的事說知, 姐姐必然自來救我。"[四十九回(100회본)]
히진 왈,
"나의 ᄒᆞᆫ 낫 누의 잇스니 이곳 손뎨할 친뎨의 안히라. 이제 동문 밧 십리패(十里牌)에 머므럿스니 부르기를 모대츙(母大虫) 고대쉬(顧大嫂)라 ᄒᆞ고 그곳에 쥬뎜을 버리고 내기ᄒᆞᄂᆞᆫ 터를 시작ᄒᆞ고 소를 잡아 팔며 우리 누의ᄂᆞᆫ 이삼십 인이 갓사히 못ᄒᆞ고 우리 ᄆᆡ부 손신이 ᄯᅩᄒᆞᆫ 무예 졍슉하니 슈고로옴을 헤치 말고 ᄀᆞ만히 쇼식을 통ᄒᆞ여 줄진댄 나의 일 곳 알면 반ᄃᆞ시 구ᄒᆞ여 주리라."

예문(13)에서 '姑娘'은 두 번 나타났는데 번역문에서 번역하지 않았다. '姑娘'은『수호지』에서 고모의 뜻으로 쓰였는데, 번역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고모와 관련하여『수호지』에는 재미있는 친척관계의 묘사가 나온다. 히진(解珍)의 고모는 고대수(顧大嫂)의 어머니고, 히진의 어머니는 손립(孫立), 손신(孫新)의 고모다. 고대수와 손신은 부부다. 그래서 고대수와 손신 부부는 모두 히진의 사촌이다. 다음 예문(14)는 오역의 예문이다.

(14) 孫立道 : "嬸子, 你正是害什麽病 ? "顧大嫂道 : "伯伯拜了。我害些救兄弟的病 ! "孫立道 : "又作怪 ! 救什麽兄弟 ? "顧大嫂道 : "伯伯 ! 你不要推聾裝啞 ! 你在城中豈不知道他兩個 ? 是我兄弟偏不是你的兄弟 ! " (第四十八回)
손립이 니러서며 문왈,
"수쉬 무슴 병을 알튼고?"
고대쉬 절ᄒᆞ며 왈,
"슉슉은 안지쇼셔, 나의 병은 두 낫 형뎨를 구ᄒᆞ지 못ᄒᆞ며 죽으리로다."
손립 왈
"이 ᄯᅩ 고이ᄒᆞᆫ 말이로다. 수쉬 엇던 형뎨 잇던고"
고대쉬 왈,
"슉슉은 귀 먹은뎨 말라. 네 셩즁에 잇셔 엇지 뎌 두 사ᄅᆞᆷ이 나의 형뎨 되ᄂᆞᆫ 줄 모르리오?"

예문 (14)에서 '伯伯'는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데 번역문에서 남편의 남동생을 가리키는 '叔叔'의 음역어 '슉슉'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와도 맞지 않는다. 한국의 친족어 체계는 서양 친족어와 달리 복잡하고 명확하고, 중국어 친족어보다도 그 수가 더 많다. 지칭에 시숙이 있고 호칭에 아주버님이 있는데 여기에

서는 오역을 하였다. 다음 예문 (15)도 오역의 사례다.

(15) 顧大嫂道 : "伯伯, 你的樂阿舅透風與我們了！一就去劫牢, 一就去取行李不遲。" (第四十八回)
고대쉬 왈,
"너의 처남 악홰이 쇼식을 재게 통긔ᄒᆞ엿거ᄂᆞᆯ 무엇을 다시 알아보리오? 이 일은 ᄒᆞᆫ 편으로 일을 힝ᄒᆞ며 ᄒᆞᆫ 편으로 집안 것을 슈습ᄒᆞᄂᆞᆫ 것이 올흐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伯伯'는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데 예문 (15)의 번역문에서 '너'로 번역함으로써, 분명히 실제 상황과 다르게 번역되었다. 여기는 싸우는 상황도 아니고 남편의 형을 설득해서 같이 사촌을 구하려는 대화이므로 시숙을 낮춰 가리킬 수 없다. 시숙을 보고 '너'로 호칭하는 것은 한국어 호칭 습관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Ⅶ. 나오며

한국과 중국은 혈연을 중시하는 종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두 언어에는 모두 풍부한 친족어 체계가 있다. 이것은『수호지』친족어의 한글 번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조선시대『수호지』친족어 번역을 살펴보면 음역, 직역, 의역 방법을 사용하고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6장에서 살펴본 음역과 직역은 주로 이국화 전략이고 의역은 자국화 전략이다.『수호지』는 중국 백화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번역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고『수호지』친족어에는 특히 구어가 많아서 중국어를 차용하고 이국화 전략으로 번역한 것이 적지 않다. 친족어와 같은 문화적 단어를 번역할 때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누락과 오역도 발생하였다. 중국어 친족어를 한국어로 바꿀 때 일부 문화정보가 유출되거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능한 많은 친족어를 다루려고 했으나,『수호지』의 분량이 많고 친족어도 상당하여 본 연구에서 모든 친족어 번역문을 정리하지 못했다. 향후에 〈표 1〉~〈표 6〉에서 나온 현족친족어, 인척친족어, 제도친족어의 해당 사례를 모두 정리·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영,『삼국지 고어사전』, 학고방, 2022.
남광우,『고어사전』, 교학사, 2011.
박재연,『슈호지』校注, 이회문화사, 2001.
박재연 · 유춘동 · 이재홍,『튱의슈호지』校注, 학고방, 2013.
유춘동,『조선시대 수호전의 수용 연구』, 보고사, 2014.
이윤석 · 박재연 · 유춘동,『슈허지』校注, 학고방, 2007.
이용해,『중한번역이론과 기교』, 국학자료원, 2002.
최용철,『홍루몽의 전파와 번역』, 신서원, 2007.

鮑海濤 · 王安傑,『親屬稱謂詞典』, 吉林出版社, 1988.
艾尼瓦爾 · 艾合買提江,「≪水滸傳≫稱謂語維吾爾語翻譯研究」, 喀什師範學院碩士論文, 2012.
胡竹安,『水滸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89.
穆海宏,『水滸詞典 1』,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2012.
穆海宏,『水滸詞典 2』,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2013.
施耐庵 · 金聖嘆,『水滸傳(註評本)』, 上海古籍出版社, 2020.
施耐庵 · 羅貫中,『水滸全傳校注』, 里仁書局, 200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유춘동,「〈수호전〉의 국내 수용 양상과 한글 번역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2.
유춘동 · 박재연,「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충의수호지』연구」,『열상고전연구』40, 2014.
최용철,「중국 번역소설과 역학서에 나타난 어휘에 대하여」,『한국어문학연구회』13, 2001.
한정한,「체계기능언어학 기반 국어 소형절의 유형과특징」,『Journal of Korean Culture』53, 2021.

陳誠,「≪水滸傳≫賽珍珠譯本的文化選擇」, 東華理工大學碩士論文, 2015.
陳佳,「從漢語血緣親屬稱謂看語言對文化的反映」,『語言研究』特刊, 2002.
劉東梅,「中英親屬稱謂語的對比分析與翻譯」,『考試周刊』04, 2016.
劉宏麗,「明清時期的語用敬謙手段」,『濟南大學學報』1, 2011.
劉少東 외,「中日親屬稱謂的對比研究」,『語文學刊』11, 2016.
劉巖,「≪水滸傳≫稱謂詞研究」, 山東師範大學碩士論文, 2004.
盧瓊,「≪水滸傳≫稱謂詞研究」, 安徽師範大學碩士論文, 2017.
聶穎 외,「跨文化視角下中韓親屬稱謂語對比研究」,『廣西教育學院學報』04, 2021.

曲家源,「≪水滸傳≫稱謂考證」,『山西師大學報』, 1994.
曲爽,「中日親屬稱謂的異同與文化特征探究」,『知音勵誌』17, 2016.
孫景美 외,「從中西方文化差異的角度理解英漢詞匯不對等現象──以親屬稱謂詞為例」,『懷化學院學報』 36, 2017.
王雪丹,「中日親屬稱謂的對照研究」,『青年文學家』18, 2016.
薛鑫宇,「中英稱謂語對比研究及其文化內涵」,『作家天地』19, 2022.
臧歡,「中韓親屬稱謂語泛化對比研究」,『青年文學家』03, 2016.
趙越,「漢韓親屬稱謂詞文化對比研究」,『青年文學家』12, 2012.

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Nida, 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검색일 : 2023.3.10.).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0일에 투고되어,
2023년 12월 1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4년 1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4년 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Kinship Terms in *Water Margin* during the Joseon Era

Dong, Juan* · Gao, Chao** · Kim, Sooyoun***

The classical Chinese novel *Water Margin* achieved substantial popularity in China, leading to the production of a multitude of editions and critical commentaries. During the Joseon era, this literary work made its way to the Korean peninsula, capturing a broad readership, and translations of Korean version were subsequently produced.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kinship terms present in the *Water Margin* translations from the Joseon period. The range of terms of address within *Water Margin* is notably diverse. These terms signify interpersonal bonds in daily interactions and are an essential component of linguistic communication. Kinship terms, compared to social terms of address, tend to be relatively stable and are less susceptible to rapid changes over time. Because both Korea and China had patriarchal system that values bloodlines, both languages boast intricate systems of kinship terminology. This shared cultural foundation significantly aided the translation of kinship terms in *Water Margin* during the Joseon period. An analysis of these translations from the Joseon era reveals the employment of transliteration, literal translation, and interpretative translation methods, combined with both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strategies. Achieving a flawless translation of cultural terms, such as kinship terms, is inherently challenging. In the course of translating Chinese terms of address into Korean, certain cultural nuances are inevitably either omitted or amplified.

[Keywords] *Water Margin*, Joseon Era, Kinship Terms, Translation, Transliteration, Literal translation Interpretative Translation

* Associate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Shan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 Associate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Zibo Vocational Institute
*** Assistant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Women's University